

# 천국의 두 가지 열쇠



## 제 31 주일(문 83-85)

**요절** :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의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 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마 18:18-20)

**문 83** : 천국의 열쇠들은 무엇입니까?

**답** : 거룩한 복음을 선포하는 것과 교회의 권징 혹은 교회로 부터 내 쫓기는 출교입니다. 이 두 가지 방법에 의해서 천국은 믿는 자들에게는 문이 열리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닫힙니다.

**문 84** : 어떻게 천국의 문이 복음전파에 의하여 열리고 닫힙니까?

**답** : 그것은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서 이루어집니다. 즉 모든 신자들이

참된 믿음으로 복음의 약속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공적으로 선포하고 선언함으로써 천국의 문은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신자들과 위선자들에게는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 한 하나님의 진노와 영원한 저주를 받게 된다고 공적으로 선포하고 선언함으로써 천국의 문은 닫히는 것입니다. 금생과 내생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이러한 복음 증언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문 85** : 어떻게 천국의 문이 교회의 권징에 의하여 닫히고 열립니까?

**답** : 그것은 그리스도의 명령에 의하여 이루어집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칭한다 할지라도 비기독교적인 교리를 믿고 비기독교적인 생활을 하고 교우들의 계속적인 권면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과 사악함을 끝까지 고집하여 그 사실이 교회의 직임자들에게 알려지고 마침내 그들의 훈계마저 거부한다면, 그 직임자들은 그러한 자에게 성례 참여를 금지시킴으로써 성도의 교체에 참여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를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쫓아내실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이러한 사람이 참다운 회개를 약속하고 그것을 실천해 보이면 그리스도와 그 교회의 일원으로 다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질문 83부터 85까지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고 또 나가게 하는 핵심 진리 즉 천국의 열쇠에 대하여 다룬다.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열쇠는 무엇이며 내 보내게 하는 열쇠는 무엇인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구원이라고 할 때 질문들은 이 구원을 선포하는 교회의 사명과 질서를 다루게 한다. 즉 천국에 들어갈 때 사용하는 열쇠는 '신실하게 거룩한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며 내 보내는 때 사용하는 열쇠는 '권징'(勸懲)이라는 열쇠라고 표현한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84문에서 '열리고 닫히는' 것을 묻지만, 85문에서는 '닫히고 열림'에 대하여 묻고 있다. 여기서 순서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 이유는 먼저 복음 선포란 열쇠로 천국의 문이 열리게 되고 천국 백성으로 합당하지 못하면 권징이란 열쇠를 사용하여 내쫓고 후에 회개하면 다시 열어준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 1. 하나님 나라로서의 교회

주님께서는 공생애 기간 동안 하신 사역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이는 가르치신 사역(말씀계시)과 행동으로 보여 주신 사역(행위계시)이다.(행 1:1) 예수께서는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계시하신 것이다.(참고: 마 4:17; 막 1:15; 막 2:9-12; 마 13장) 이러한 주님의 사역은 사도들에게도 전수되어 하나님나라는 계속 선포되었고(행 8:12; 14:22; 19:8; 20:25; 28:23), 이 사역은 초대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게 되는 지속적인 사역임을 누가는 밝히고 있다.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금하는 사람이 없었더라.”(행 28:31)

이렇게 형성되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사역은 교회로 실현되어진다. 초대교회는 바로 이러한 의식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였고 또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갔던 것이다. 이는 교회의 형성을 의미한다. 즉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는 교회를 포함하는 넓은 개념의 구원의 도리이다. 즉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에 포함되는 개념이다.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일부로서 교회의 사명과 운영에 대하여 살펴보자.

## 2. 열고 닫는 열쇠 두 가지

질문 83에서 하나님 나라 즉 천국의 열쇠를 두 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하나는 거룩한 복음의 선포(설교)이고 또 하나는 권징(勸懲)이다. 이는 교회가 세워져 감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사역을 생각하게 한다. 과연 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일까? 흔히 교회는 관계 중심으로부터 형성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형식적이거나 기계적인 요소일 뿐이다. 아무리 관계가 깊고 친밀하여 교회에 나온다고 하더라도 진정한 믿음은 그렇게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사실 복음 전파와 권징은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 두 가지는 예수께서 교회에 맡겨주신 사역이다. 주님은 사도 베드로의 바른 신앙고백을 들으시고(마 16:16), 그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다. 이 때 베드로 개인에게 주신 것이 아님은 물론이다. 그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신 이유는 그가 한 바른 신앙고백 때문이다. 주님은 그의 신앙고백을 근거

로 그에게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마 16:19)고 하셨다. 이는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천국 열쇠를 사용할 권세를 주신 것이다. 이는 교회가 말씀 선포와 권징의 권세를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음을 의미한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18장에서도 다시 한 번 더 언급하고 있음에서 확인된다.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마 18:15-18) 즉 교회는 말씀 선포와 권징을 통하여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형성해 가는 데 있어서 영적권세를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주님으로부터 주어져 있는 것이다.

### (1) 첫째 열쇠 : 복음 선포와 가르침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은 참된 복음이 전파되고 그 전파된 말씀을 진심한 믿음으로 받아드릴 때 되는 것이다. 천국 백성이 되는 첫 번째 절차는 말씀 전파가 선행된다. 복음 진리가 먼저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그 참된 복음이 공적으로 혹은 개인적으로 선포되고 가르쳐져 이를 듣고 배워 믿음으로 받아드리고 고백하는 자가 바로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구원의 절차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네게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롬 10:8-10)

이러한 사역은 오늘날 목사에게 주어진 가장 핵심적인 사역이다. 즉 목사는 교사며 설교자(Teacher-Preacher)인 것이다. 목사는 주어진 하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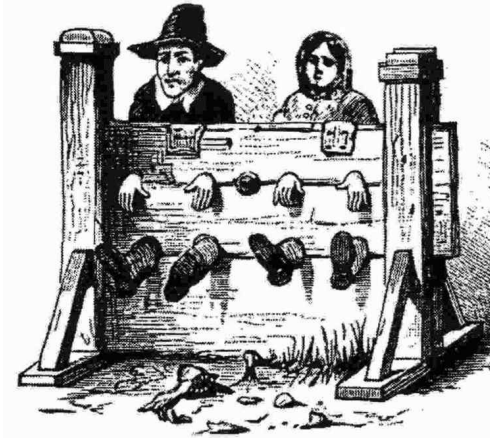
님의 말씀 즉 성경말씀을 강설(講說)하고 강론(講論)하여 그 말씀을 선포하고 설명하는 일을 감당하는 자인 것이다. 그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수하신 대속의 진리를 받아드리려 모든 죄를 사함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나라 백성답게 살아갈 것을 촉구하는 것이다.

## (2) 둘째 열쇠: 권징(勸懲)

그런데 성도들 가운데는 이 귀한 구원 진리를 받아드리려 자신의 죄인 됨을 인식하고 회개하며 더욱 주님의 은혜를 구하여 성숙된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성장하여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자들이 있는 반면에 그 진리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성실하게 고백하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거역하고 심지어 대적하는 자들이 교회 내에서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구분은 신실하게 말씀이 전파될 때 확실하게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하겠다.

신실하고 타협 없는 확실한 말씀 선포는 바로 듣는 자들의 양심에 도전하게 되어 듣고 회개하여 순종하게 되든지 아니면 그 말씀에 반발하고 거역하게 되든지 그 중간 지대는 없다. 만약 말씀을 듣고 진심 어린 회개와 적극적인 순종으로 결단하지 않고 그럭저럭 지내는 교인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며 그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 이 과정에서 교회는 이렇게 말씀에 대하여 거역하거나 교회에 위해를 하는 자들에 대하여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가 바른 신앙생활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며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도록 교제하며 권면해야 한다.

만약 그 성도가 그러한 교제와 권면을 거부할 경우 교회는 적극적으로 그 심령을 말씀으로 다루어야 하며 급기야 교회의 권면과 치리를 거부할 경우 교회는 그를 징계(懲戒)할 수 있다. 이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이생에서나 내세에 있어 선악 간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 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고후 5:10) 진정한 하나님 나라 백성 즉 교인은 이 같이 바로 죄를 회개하고 신앙을 고백하는 성도로 형성되어지며, 그 성도는 부단히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 힘쓰는 신앙생활로 이어지는 과정으로 나타나게 된다.



sinners & shamer : Rise of church discipline in America

## 3. ‘복음 전파’의 중요성

질문 84에서 천국의 첫째 열쇠는 ‘복음의 선포와 증언’임을 밝히고 있다. 복음을 통하여 천국이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하는 것이다. 즉 선포된 복음을 받아드리면 천국백성이 되는 것이며 거부하면 천국백성에서 배제되는 것이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드리면 죄를 깨닫게 되고 참된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나라 백성이 되지만, 복음을 거부하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 가운데 처해 영원한 형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복음 전파는 천국의 문을 여닫는 열쇠인 것이다.

여기서 문제는 복음 전파자에게 주어져 있는 권한이다. 복음 전파자에게 주어진 이 권한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신 바에서 확인된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赦)하면 사(赦)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도 있으리라 하시니라.”(요 20:21-23)

사도들은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복음 전파와 사죄의 권한을 부여 받은 것이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 삼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눅 24:46-48) 주님께서서는 창자 사도들의 사역으로 이루어진 성도와 교회 가운데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였다.(마 28:20) 이는 주님께서 교회 속에 항상 함께 하시며 선포되는 말씀으로 통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을 불러 모으시고 또한 권징을 통하여 확실하게 관리하시겠다는 의미인 것이다. 교회에 세움을 받은 직분자들이 신실하게 바른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칠 때 이를 듣는 자들에게 주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다.

복음 전파자가 전하는 복음에는 생명과 사망의 길을 제시하며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생명을 얻어 구원에 이르는 하고 거역하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기능이 있다. “우리는 구원 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고후 2:15,16) 즉 교회는 말씀의 종들을 통하여 복음을 선포하고 증언하여 그 말씀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성도들의 심령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통치를 받게 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다. 이 전달되고 증언하는 복음의 내용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도리뿐 아니라, 이 세상에서와 장차 올 내세에 있을 구원의 완성 즉 심판에 대한 진리가 담겨있다.

#### 4. 권징의 중요성

질문 85에서는 천국의 두 번째 열쇠에 대하여 가르친다. 말씀의 선포가 천국을 ‘열고 닫는’ 기능을 한다면, 권징은 ‘닫고 여는’ 기능을 한다. 무슨 말인가? 권징은 징계를 통하여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게 하려는 목적으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 이루어가는 신앙공동체 안에는 죄인들이 모여 서로 교제하는 가운데 상충되는 일들이 발생하는 것은 어찌면 당연한 모습일지 모른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처리하는 가하는 점이다.

주께서는 이러한 경우를 염두에 두시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어떻게 잡아갈 것인가를 가르치셨다. 주님은 이렇게 교훈하셨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 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 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참케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마 18:15-17)

이 말씀에서 교회가 어떻게 성도들의 영적 질서를 잡아가야 할 것인가를 배울 수 있다. 교회 내에서 성도 개개인을 대할 때 그 사람의 위치와 신분에 대한 체면과 대접 차원이 아니라, 교회의 영적 질서를 확립하는 차원에서 다루어 가는 절차를 말씀하신 것이다. 사도 바울도 이러한 수준 높은 영적 차원에서 성도 모두가 깊은 이해와 협력을 요구하였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라.”(골 3:16)고 권면한다. 여기서 ‘풍성한 그리스도의 말씀’의 공유함이 교회 내에서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를 기억해야 한다. 즉 교회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세상의 지식과 가치(價値) 그리고 세속적인 판단의 기준이 아니라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권하는 자와 권함을 받는 자가 되어 하나님 나라 즉 교회와 신앙공동체를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교회에서 이 같은 권징이라는 열쇠를 사용할 때 가장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은 그것이 형벌의 수단이 아니라 교정(矯正)의 수단으로써 다시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이다. 그러기에 겸손과 온유로 말씀을 가지고 권면하고 책망하여 그 말씀에 근거한 권징을 이해하고 받아드려 믿음으로 회개하고 거룩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거룩한 신앙 공동체에 합당하지 못 사람이 있을 경우 권징이라는 열쇠는 다시는 거룩한 신앙공동체인 천국의 문을 열지 못하도록 출교(驅敎)까지도 시행할 수 있다. 이는 여호와와 산에 오를 자들은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시 24:4)이며, 장차 “개들과 짐승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

는 자는 다 성 밖에 있게 될 것”(계 22:15)이기 때문이다.

이런 차원에서 권징은 현재 교회내의 질서를 바르게 잡아 신앙공동체의 거룩함을 유지하고 진리 가운데 천국의 영광스러움을 유지하게 할 뿐 아니라, 장차 완성될 그 나라의 완성을 바라보고 그 나라에 함께 들어가 완성할 나라를 이루도록 온 백성들을 격려하고 훈련하고 개혁하여 그 나라에 참여하게 하는 보다 강력한 의미가 있는 것이다.

교회는 바로 이러한 권징과 훈련을 통하여 주님의 몸 된 교회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 가게 되는 것이다. 바라기는 모든 교회가 온전히 하나님께서 거하시며 다스려 나아 나가는 하나님 나라로서의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길 소원한다.

## 결 론

신실한 ‘복음 선포’, ‘성례 실시’, 올바른 ‘권징’ 이 세 가지 요소는 개혁 교회의 3대 지표라 부른다. 교회가 신실하게 말씀을 전파하고 강력한 세속화의 영적 도전과 변화 속에서 바른 권징을 시행할 때 신실한 성도들은 거룩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을 이루어 가게 될 것이다. 그런데 과연 오늘날 교회가 참으로 신실하게 구원의 복음인 말씀을 전파하며 성례를 실시하고 나아가 올바른 권징을 실행하고 있는 지 의문을 갖게 된다. 오늘날 교회를 세속화로부터 구별되게 하는 중요한 사역인 권징이 교회 내에서 실종되어가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구원의 나라 즉 하나님 나라를 충만히 채워 가시는 구원사역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엡 1:10,22,23) 지금도 복음은 주 예수께서 완성하신 구원의 도리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을 불러 모아 교회를 이루어 가는 원천이며 이 복음의 원리로 성도들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다. 신실한 성도들은 주님의 몸 된 교회를 깊이 알고 또한 어머니의 품과 같은 교회를 깊이 사랑하고 존경하며 온전히 세워가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sup>(\*)</sup> 글쓴 이 / 박병은 목사(덴버 돌로스장로교회 담임) < 다음에 계속 >